

임상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직업윤리

이선경¹, 성정민^{2*}

¹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²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Ethical Values and Work Ethic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echnician

Sun-Kyoung Lee¹, Jeong-Min Seong^{2*}

¹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Wonju, Korea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nistratio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로 편의 표본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 가운데 75부의 치과위생사 설문지와 90부의 치과기공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종자료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두 집단 모두 윤리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고,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 할 의사가 있음으로 조사되어 직업적 사명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두 집단 모두 임상활동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 될 것임을 과반수 이상에서 응답했고, 이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윤리적 기반이 확립된 지속가능한 전문직업적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로 직업적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obtained licenses for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echnicians and analyzed the data by sampling convenience as those currently working in hospitals. It was selected as the final data using 75 dental hygienist questionnaires and 90 dental technician questionnaires. The analysis found that both groups had high ethical values and that they were willing to serve if given volunteer opportunities, indicating a high sense of 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mission. In addition, more than a majority of both groups surveyed said ethical issues would emerge in clinical activities, and that job ethics education was desperately needed.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foster professional expertise by developing sustainable professional education and programs with established ethical foundations.

Key Words Dental hygienists, Dental technicians, Ethical, Medical service, Values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 능력 중 직업윤리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근로윤리와 직업윤리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모든 직업은 직업적 사명감과 직업윤리에 대한 요구도가

제기되어 왔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환자들의 보건의식수준 향상, 다양한 대상자 특성 등으로 인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 중에 보건의료인은 종종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되며, 진료 중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특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Corresponding author: Jueng-Min Seong(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33-540-3393 Email: jmseong@kangwon.ac.kr

Received June 09, 2021

Revised July 05, 2021

Accepted July 09, 2021

수 있는 윤리적 가치관 및 의사결정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2].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사와 함께 구강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구강보건전문가이며[3] 환자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지각, 신념 및 태도와 뚜렷한 소명감과 긍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윤리강령의 본질과 철학을 증시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소명감과 자신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4] 직업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보건의료인 중 치과기공사는 의료인의 진료에 필요한 환자의 치과보철물을 제작·수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의 치료행위에 필요한 환자의 치과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는 일반 직업인의 직업윤리보다 윤리적 규범이 더 엄격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5].

최근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수되는 성희롱 관련 피해와 진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이러한 사건들은 윤리교육 부재에서 오는 실수나 지속되어 온 치료관행들에서 발단이 되었고, 재발방지 교육도 미비한 상태이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전문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면허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임상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200부의 설문지를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치과위생사는 100명 중 75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치과기공사는 100명 중 9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설문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4부의 설문을 제외한 161부가 최종 분석 자료에 이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Petrovich [7]가 개발한 설문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사항과 직업윤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10개의 문항,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교육을 받았는지 유무 등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총 24개로 구성하였다.

직업윤리에 관한 문항은 4점 척도로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그렇지 않다=1점’으로 산정하였고, 자기기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업윤리 관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12$ 로 나타났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징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처리 후 t-test하였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ANOVA 후 Duncan 사후분석 하였다. 유의성 판단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 같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62.7%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경기 54.7%, 서울 23.0%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1-4년이 46.6%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3년제 졸

[Table 1] A dental hygienist and general points of a dental technician

[표 1]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N =161

Variables	Categories	Dental hygienist n(%)=72(100.0)	Dental technician n(%)=89(100.0)	Total
Sex	Male	2(2.8)	58(65.2)	60(37.3)
	Female	70(97.2)	31(34.8)	101(62.7)
Age	20s	48(66.7)	51(57.3)	99(61.5)
	30s	16(22.2)	11(12.4)	27(16.8)
	40s	5(6.9)	12(13.5)	17(10.6)
	50s≤	3(4.2)	15(16.9)	18(11.2)
Area	Seoul	7(9.7)	30(33.7)	37(23.0)
	Gyeonggi-do	54(75.0)	34(38.2)	88(54.7)
	Kangwon-do	2(2.8)	17(19.1)	19(11.8)
	Chungcheong-do	2(2.8)	2(2.2)	4(2.5)
	Gyeongsang-do	6(8.3)	1(1.1)	7(4.3)
	Jeolla-do	1(1.4)	5(5.6)	6(3.7)
Clinical career	1~4 year	35(48.6)	40(44.9)	75(46.6)
	5~9 year	18(25.0)	7(7.9)	25(15.5)
	10~14 year	9(12.5)	13(14.6)	22(13.7)
	15~19 year	4(5.6)	10(11.2)	14(8.7)
	20 year≤	6(8.3)	19(21.6)	25(15.5)
Academic background	a three-year graduation	40(55.6)	51(57.3)	91(56.5)
	Academic Credit Bank System	1(1.4)	3(3.4)	4(2.5)
	a four-year graduation	28(38.9)	29(32.6)	57(35.4)
Working organization	Graduating from graduate school	3(4.2)	6(6.7)	9(5.6)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69(95.8)	8(9.0)	77(47.8)
	Dental technology laboratory	0(0.0)	81(91.0)	81(50.3)
	A public officer	2(2.8)	0(0.0)	2(1.2)
	Etc	1(1.4)	0(0.0)	1(0.6)
Economic status	Rich	0(0.0)	10(11.2)	10(6.2)
	Normal	65(90.3)	58(65.2)	123(76.4)
	Poor	7(9.7)	21(23.6)	28(17.4)
Religion	Christianity	21(29.2)	18(20.2)	39(24.2)
	Catholic	5(7.1.4)	19(21.6)	24(14.9)
	Buddhism	4(5.6)	8(9.0)	12(7.5)
	Have no religion	42(58.3)	44(49.4)	86(53.3)
(When there is a religion) Religious participation	Hard	2(2.8)	4(4.5)	6(3.7)
	Generally	9(12.5)	10(11.2)	19(11.8)
	Formal	7(9.7)	6(6.7)	15(9.3)
	Not participate	11(15.3)	38(42.7)	49(30.4)
	Total	29(40.3)	58(65.2)	87(54.0)
Whether a healthcare worker is a member of the family	Yes	13(18.1)	21(23.6)	34(21.7)
	No	59(81.9)	68(76.4)	127(78.9)

업이 56.5%, 4년제 졸업이 35.4% 순으로 조사되었고, 근무 기관은 치과기공사가 50.3%, 보건 의료기관이 47.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76.4%로 가장 높았고, 종교는 없다는 응답이 55.3%, 기독교 24.2%, 천주교 14.9%, 불교 7.5%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중 의료종사자가 있는지에 대해 21.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3.2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치과위생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38.8%, ‘가끔 혼동됨’과 ‘상황에 따라 바뀜’이 30.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치과기공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49.4%, ‘상황에 따라 바뀜’이 32.6%, ‘가끔 혼동됨’이 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3.3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치과위생사는 ‘나는 그

[Table 2]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ists and dentists

[표 2]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

N=161

Variables	Categories	Dental hygienist	Dental technician
Ethical values	Certain	28(38.8)	44(49.4)
	Confusion	22(30.6)	16(18.0)
	Depending on the situations	22(30.6)	29(32.6)
	Total	72(100.0)	89(100.0)

위로 한다'가 리커트 4점 척도 평균 3.0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본인만 아는 직무 관련 의료 지식을 다른 직장의 의료기사와 공유하지 않음'이 2.9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관련 의료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음'이 2.9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3.4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

[Table 3] A dental hygienist and work ethic of a dental technician

[표 3]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

N = 161

Variables	Dental hygienist M ± SD	Dental technician M ± SD	P-value
Performing trea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patient	2.72 ± 0.890	2.46 ± 1.108	.071
Free education for health promotion for local residents that intention of doing	2.60 ± 1.125	2.04 ± 0.811	.002
Spending enough time on research activities is closely related to providing quality care to patients	2.96 ± 0.943	1.36 ± 0.549	.066
Subjects are obliged to be polite and best treated when speaking or behaving very rudely	3.03 ± 0.773	1.98 ± 0.825	.008
I prioritize professional mission consciousness above all else	3.07 ± 1.128	3.02 ± 1.586	.000
If the patient asks to keep a secret while talking about his suicide plan, he will keep a secret	2.65 ± 0.998	1.93 ± 1.175	.002
The name of a famous sports athlete may be used in advertising for a private hospital or healthcare provider	2.33 ± 0.757	2.54 ± 0.972	.019
Do not share job-related medical knowledge only you know with other workplaces	2.10 ± 0.609	2.90 ± 0.954	.001
Willing to do job-related medical service opportunities	2.99 ± 1.212	2.64 ± 0.608	.029
Active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activities, such as associations or conferences for the development of major studies	2.29 ± 1.117	1.81 ± 0.838	.005

무엇보다도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위로 한다'가 리커트 4점 척도 평균 3.0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음'이 3.03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관련 의료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음'이 2.9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과기공사는 '나는 그 무엇보다도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

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표 4]와 같다. 앞으로 임상활동에서 윤리적 문제가 더욱 커질지에 대해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76.5%와 6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치과위생사는 '잘 모르겠다' 22.2%, 치과기공사는 33.7%로 조사되었다.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필요하다' 48.6%, '잘 모르겠다' 34.7%, '필요

하지다' 16.7% 순으로 조사되었고, 치과기공사는 '필요하다' 57.3%, '잘 모르겠다' 22.5%, '필요하지 않다' 20.2%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Ethical issues in dental hygienists and dentists and the need for vocational ethics education

[표 4]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N =161

Variables	Categories	Dental hygienist	Dental technician	p-value
Whether you think it an ethical problem in clinical activity in the future will be greater	Yes	55(76.4)	58(65.2)	0.001
	No	1(1.4)	1(1.1)	
	Don't know	16(22.2)	30(33.7)	
The need for vocational ethics education	Need	35(48.6)	51(57.3)	0.022
	Not need	12(16.7)	18(20.2)	
	Don't know	25(34.7)	20(22.5)	
	Total	72(100.0)	89(100.0)	

4. 고찰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와의 신체접촉, 노출, 비용, 사생활, 전이, 역전이, 병원의 도덕적경영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단순히 진실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직업적 윤리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5]. 보건의료인으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이와 연관된 환자와의 관계, 인간관계, 직종과의 관계 등을 직업윤리를 통해 배움으로써 윤리적 사고가 배양된 보건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8]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윤리적 딜레마를 적게 겪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처를 위한 윤리교육의

심화와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근래 '우리나라 치위생윤리 교육의 현황과 제언'의 연구[9]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치위생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치위생(학)의 교육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부 치위생(학)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직업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치위생 의료윤리', '직업윤리와 의료서비스', '치위생 윤리학', '보건윤리'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치위생 인증평가를 위한 지침에서 '치위생 윤리'관련 교과목에 가산점이 부여됨으로써 몇몇 대학에서는 개설 예정 과목으로 준비 중에 있다.

치과위생사는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에 리커트 4점 척도 3.0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문직이라는 직업적 사명의식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의료 봉사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2.99점으로 조사되어, 직업적 사명의식을 기반으로 한 봉사의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치과기공사의 윤리에 대한 가치관 인식은 매우 확고하다가 49.4%의 의견을 보였고,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이 3.02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치과기공이 성장하면서 윤리적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65.2%로 나타나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치과의료에서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의료인력으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가 겪는 임상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직업성 교육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로 직업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1. 치과위생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38.8%, '가끔 혼동됨'과 '상황에 따라 바뀜'이 30.6% 순으로 조사되었고, 치과기공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49.4%, '상황에 따라 바뀜'이 32.6%, '가끔 혼동됨'이 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치과위생사는 직업적 사명의식이 매우 높았으며,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치과기공사는 직업적 사명의식이 매우 높았으며, 본인만 아는 직무 관련 의료 지식을 다른 직장의 의료기사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고, 두 집단 모두 직무 관련 의료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3. 앞으로 임상활동에서 윤리적 문제가 더욱 커질지에 대해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Reference

[1] Y-S. Moon, 'Advertising business ethic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vs. advertising professionals', *Korean J Advert*, vol.12, pp.83-101, 2001.

[2] Y-S. Moon, M-Y. Moon M-K. Jeon and A-H.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 Korean Bioethics Assoc*, vol.4, no. 1, pp.27-47, 2013.

[3] S-J. Lee and G-S. Han, 'The ethical propensity, professionalism and ethical job behavio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vol.36, no. 3, pp.238-248, 2012.

[4] S-S, Lee,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vol.13, no. 4, pp.535-542, 2013.

[5] S-K. Lee, 'A Study on perceptions of vocational ethics and education among dental technicians', *J Tech Dent*, vol. 42, no. 4, pp.372-378, 2020.

[6] Y-J. Kim, 'Evaluation of the level of moral development of Korea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vol.11, pp.251-261, 2011.

[7] Petrovich O,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73, no. 2, pp.313-316, 1982.

[8] E-Y. Choi,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 1, pp.153-163, 2018.

[9] S-Y. Ahn and J-Y Han, 'The Present Status and Recommendation of Dental Hygiene Ethics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 19, no. 2, pp.79-90, 2017.